

새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 배경

태국은 1932년에 입헌군주제를 실시한 이후부터 ‘아난타 사마콤’ 왕궁이 하원회의의 첫 의사당으로 사용하다가 1970년에 국회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국회의사당 건설을 시작했다. 1974년에 현재의 의사당 건물이 완공되었고 ‘아난따 사마콤’ 왕궁에서는 국회의 첫 개회를 기념하는 의식은 계속되었다. 현재 건물은 헌법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의석 수가 증가하고 국회의 공무원들의 수도 증가하면서 비좁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은 상, 하원의 수 만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 5년간 국회는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까삐, 톱코, 타한타이, 디프럼 같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해 왔다. 따라서 국회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지역별로 나누어 업무를 하게 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직원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이유 인해 1992년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새 국회의사당 건설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 7월에 이르러 사막 순터라웻 총리를 위원장으로 차이 찻첩 국회의장, 뿌라섭숙 분뎃 상원의장, 솜삭 끼얏수라논과 아피완 위리아차이 하원부의장, 니콤 와이라차파닛 상원부의장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새로운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방콕의 군부대 부지 (끼약까이), 논타부리 소재 육군의 무기 저장고 부지, 크렁띠이 지역의 연료 저장 부지 모두 3곳의 새로운 국회의사당 건립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새 국회의사당 건설을 위한 위원회는 장소의 적합성 여부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설계, 건설, 경제, 환경, 교통,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방콕의 두싯지역에 위치한 군부대지역(끼약까이)을 새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로 결정하였다.